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 차이가 생기는 몇가지 원인

오 희 복

민족고전을 번역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창조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첫 공정이다.

민족고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옛날책은 대체로 한문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번역하지 않으면 리용할 사람이 많지 못하다.

민족고전을 번역하려면 한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옛날책이 주로 한문으로 씌여져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번역할수 없습니다.》(《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 40페이지)

옛날책번역에 필요한 한문지식은 한자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한문문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밖에 한문으로 씌여진 글의 뜻을 정확히 리해하는데 참고로 되는 지식이다.

한문은 뜻글자에 기초하고있는 고립어로서 문법이 덜 발달되어있고 대체로는 언어관습에 의하여 리용되어온 순수 글말이다.

한문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각이한 민족들에 의하여 오랜 기간 리용될수 있는것은 그것이 뜻글자에 기초하고있는 언어로서 여러 지역의 민족어의 어음이나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말소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중세 우리 나라에서 씌여온 한문은 어휘가 풍부하고 표현이 다양한 우수한 우리말의 영향을 받아 조선식한문이라는 독특한 글말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문 그자체의 언어적규범은 대

체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한문으로 씌여진 민족고전을 번역하자면 한문에 고유한 언어적현상들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한문이 다른 언어 특히 우수한 우리말과 다른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문장의 문법적구조와 논리적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구조란 해당 문장에서 단어들과 문장성분들이 문법적규범에 따라 맞물리는 문법적관계를 말하며 논리적의미란 해당 문장이 담고있는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의미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언어마다 문장의 문법적구조와 논리적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장의 문법적구조와 논리적의미가 다르게 리해되는 경우가 한문처럼 심한 언어는 매우 드물다.

한문에는 일정한 언어적규범이 있으나 언어실천적으로 문법적규범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리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것은 한문이 뜻글자를 리용하는 고립어라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단어들의 품사소속이 명백하지 않기때문이다.

한문에서 단어들의 품사소속은 오직 문장속에서만 뚜렷해진다. 이것은 한문에서 한자가 대체로 여러가지의 뜻을 가지고있으며 단어의 품사바뀔현상이 매우 보편적이며 우심하기때문이다.

《博奕之交不日》(《芝峰類說》 권15)

《扶老携幼 渡江而西》(《高麗史》 권31)

우의 례문에서 《日》은 동사이며 《老》, 《幼》는 명사이다. 일반적으로 한자《日》의 뜻은 명사이고 《老》, 《幼》의 의미는

형용사이지만 ㄹ레문에서는 품사바뀜현상에 의해 품사가 달라졌다.

한문문장에서는 이처럼 단어의 품사바뀜현상이 매우 활발하다. 이것은 한문문장에서 문법적구조와 논리적의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단어와 문장이 구별되지 않기때문이다.

표음문자를 리용하는 언어들에서는 글말에서 단어와 문장이 대체로 구별된다. 그것은 해당 언어들에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문은 단어의 형태를 표시하는 문법적수단이 덜 발달되어있으며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天存等將軍出禦之》(《三國史記》권42)

《又定人民戶以守墓焉》(" 권43)

한문에서 《將軍》, 《人民》은 흔히 단어로 리용된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위의 ㄹ레문에서 《將軍》은 《군사를 거느리다.》의 뜻이고 《人民戶》에서 《人》은 《民戶》에 대한 규정어로서 《人民戶》가 술어《定》에 대하여 보어로 되었다.

한문문장에서는 형태적으로 똑같은 경우에도 어떤때에는 단어이고 또 어떤때는 문장으로 된다.

《皓首奮畎畝 草野願忠心》(崔益鉉《贈金箕述》)

《馮唐郎潛而皓首》(《三國史記》권46)

《今日是立功取富貴之時》(" 권44)

《何必富貴然後可共乎》(" 권45)

위의 ㄹ레문에서 《皓首》와 《富貴》는 형태적으로는 똑같이 두 문장에 쓰이었으나 첫째 문장에서의 《皓首》와 셋째 문장에서의 《富貴》는 단어이고 둘째 문장에서의 《皓首》와 넷째 문장에서의 《富貴》는 문장이다.

이처럼 한문에서는 단어와 문장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문문장의 문법적구조와 논리적의미를 리해하기 어렵게 한다.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문장의 성분을 갈라보기가 어렵기때문이다.

문장에서 성분들이 놓이는 자리는 언어마다 대체로 고정되어있다. 문체론적으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순을 일부러 변경시키지 않는 한 문장안에서 해당 성분이 놓이는 자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성분을 갈라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른 문법적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한문에서는 사실 어순이 문장성분을 규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그러나 품사바뀜현상이 우심한 한문에서는 어순만 가지고서는 해당한 단어의 문장성분을 알아보기 어렵다.

《農夫揮汗勤終歲 蠶婦蓬頭苦一春》(金時習《詠山家苦》)

이 문장에서 《勤終歲》와 《苦一蠶》은 각각 문장인데 세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안에서 성분을 갈라보기는 쉽지 않다. 《勤終歲》는 《부지런히 해를 마쳤다.》로 리해하면 《상황어—술어—보어》로 되지만 《온 해를 부지런했다.》로 번역하면 《온해》는 보어로 되고 《부지런했다》는 술어로 된다. ㄹ레문에서는 《勤終歲》와 《苦一春》은 대구이므로 《勤終歲》는 《온 해를 부지런했다.》의 의미이다.

우리의 언어생활에 널리 알려진 《走馬加鞭》과 《失馬治廐》는 문법적구조의 측면에서는 똑같은 문장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리해하는 과정을 보면 《走馬》는 《규정어—피규정어》로 리해하고 《失馬》는 《술어—보어》로 인정한다. 이것은 한문문장에서 문법적구조만 가지고서는 문장안에서

성분을 규정짓기 어렵다는것을 말해준다.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일부 문법적수단의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모호하기때문이다.

한문에서는 문법적수단으로 흔히 조사가 리용된다. 그런데 한문의 조사들은 기능이 대체로 포괄적이고 또 그것이 뚜렷하지 못하다.

《穿窬之行可惡而喜而笑之》(林悌《鼠獄說》)

《能不動心者鮮矣乎》(《三國史記》권48)

《以微者爲偶不亦可恥乎》(" 권45)

우의 례문에서 《惡而喜而笑》에 쓰인 《而》들은 그 문법적기능이 같지 않다. 《惡而喜》의 《而》는 내용적으로 대립관계를 표시하였고 《喜而笑》의 《而》는 내용적으로 종속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우의 례문들에 쓰인 조사《乎》들은 서로 문법적기능이 달라서 한 문장은 감탄문을 나타내었고 다른 한 문장은 의문문을 표시하였다.

이처럼 한문의 조사들은 문법적기능이 다양하지만 그것이 문장자체의 문법적표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어순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어순은 언어마다 대체로 고정되어있다. 어순에 따라 문장성분이 달라지는 한문에서의 어순은 더구나 확정적인 언어적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의 어순은 고정되어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롭게 변동될수 있다.

《養丸腹於網絲》(李奎報《放蟬賦》)

《我則加人 人莫我窺》(李秉模《龜船頌》)

우의 례문에서 《丸腹》은 간접보어이고 《網絲》는 직접보어인데 어순을 바꾸어놓았다. 그리하여 문법적구조의 측면에서 내

용을 보면 《그물실에서 둥그런 배를 기른다.》로 되었다. 그러나 문장의 논리적의미는 《둥그런 배에서 그물실을 기른다.》이다. 그리고 한문에서 보조동사《莫》은 동사술어와 의미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술어와 직접 결합되나 례문에서는 동사술어인《窺》와 결합된것이 아니라 직접보어인《我》의 앞에 놓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문의 전형적인 어순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것은 논리적의미에 의하여 문장의 내용이 전달되기때문이다.

한문의 문법구조와 논리적의미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문장의 유형이 명백하지 않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문장성분들의 대립관계를 비롯하여 문장성분호상간의 문장론적관계는 여러가지 문법적표식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구획된다. 그것이 단순문인가 복합문인가, 단일문인가 확대문인가 하는것은 문장의 문법적구조, 문장론적표식들을 보면 뚜렷이 알수 있다.

그러나 한문문장은 이러한 문장론적구획이 명백하지 못하다.

《國初始用文字時有人記事一百卷名曰留記》(《三國史記》권20)

우의 례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볼수도 있고 두개의 문장으로 볼수도 있으며 또 세개의 문장으로 리해할수도 있다. 이 문장을 《나라의 초기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에 어떤 사람이 사실 백권을 기록하고 이름을 〈류기〉라고 하였다.》로 리해할수도 있고 《나라의 초기에 비로소 문자를 사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사실 백권을 기록하고 이름을 〈류기〉라고 하였다.》로 번역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의 초기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백권은 이름을 〈류기〉라고 하였다.》로 내용을 해석하여도 잘못이 아니다.

한문은 이처럼 문장의 유형, 문장의 형식이 뚜렷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한문의 여러가지 특성은 총체적으로 문장의 문법적구조와 논리적의미를 일치하지 않게 할뿐아니라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한다고도 할수 있다.

그러므로 한문의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려면 문장의 문법적구조와 함께 논리적의미를 옳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한문으로 된 옛날책을 번역하는데서 한문문장의 문법적구조에 대한 지식이 기초라면 논리적의미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한문문장의 문법적구조에 대한 지식이 해당 문장의 내

용을 리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면 논리적의미는 문장의 내용을 진술의 목적에 맞게 파악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지식이다.

한문문장의 논리적의미는 해당 문장이 가지고있는 생활의 논리, 형상의 논리에 따르는 의미이다.

한문문장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문법적특성을 정확히 리해하고 한자에 대한 지식과 한문의 문법, 문체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가지고있어야 우리민족이 오랜 세월 창조하여놓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옳바로 번역, 소개하고 연구할수 있게 될것이다.